

# 인공임신중절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신원하 (교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원하 교수는 교려신학대학원을 나와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보스턴 대학에서 기독교사회윤리학을 전공했다. 현재 교려신학대학원에서 원장으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죽음에 이르는 일곱가지 죄와 교회가 대담해야 할 윤리 문제들, 전쟁과 정치 등이 있다

## 한국 사회의 근래의 시각과 논의

법적으로 한국은 낙태를 금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신체적, 정신적 여러 이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 실태에 대한 최근 통계인 201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 해 공식적으로 17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는데, 낙태로 기소된 경우는 고작 10건 정도이다. 낙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을 들어 2017년 9월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유명무실한 낙태죄를 폐지하여 행여 여성들이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을 수용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

한 수준의 권리로 간주하고 그동안 사회가 12주 이전에는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낙태를 줄이는 예방책으로 피임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발표는 정부가 낙태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태아를 인격생명체로 바라보려는 기본인식 보다는 산모의 권리와 사생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낙태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달린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복중 태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 이해한다면 낙태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요 심각한 도덕적 문제

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지평에서 낙태문제를 바라보고 논의해야 한다.

## 태아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창1:26).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사실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성격을 동물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할 것을 명령했다(창9:6). 그 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에 차이는 없다. 문제는 태어나지 않은 복중의 존재이다. 그 존재도 우리와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 존재일까? 그렇게 볼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부모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한다(창29:31; 30:22; 시139:16). 그 대표적인 곳이 시편이다. 시인은 139편에서 “주께서 내 내장(장부)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13절)...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16절)”라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중에 지으시고 돌보셨다는 것이다. 또한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의식하고 찬송하고 있는 자신과 모태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던 그 태아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와 현재의 자신에게 모두 동일한 인칭 대명사인 “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시139:1,2,12,15,16). 다윗이 현재 자신을 죄 가운데 어미 복중에서 잉태되었던 그 존재였다고 동일시한 것도 유사한 경우이다(시51: 5).

하지만 이 구절은 출산 이전 단계에 있는 태아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특정 단계에 있는 복중 태아의 가치나 성격을 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시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전히 그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맥락에서, 과거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을 언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미즈(Lewis Smedes)교수는 이 구절에서 태아의 지위에 관한 사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이 시는 그것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신학자인 헤이즈(R. Hays)도 이 부분은 시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시적 표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과학적인 주장을 위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탈하는 무리한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시139편의 태아에 대해 기술한 구절에는 시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음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에는 복중태아의 가치와 지위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태아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끄집어 낼 수 있는 타당한 근거 자료가 된다. 성경에는 적잖은 내용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회는 이 성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찾아서 신앙고백으로 만들어 가르쳐왔다. 비록 시편 139편의 관련 구절이 태

아의 발생에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지만, 교회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태아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시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성경의 다른 여러 관련내용과 함께 살펴서 태아의 가치와 도덕적 지위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 자기를 지으셨고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자신을 아셨고 돌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 태아의 전 기간에 걸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주장하고 있다.

### 초기 배아의 성격과 도덕적 지위

수정된 지 8주 내지 2주 이전의 배아나 전기 배아를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인격체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능론적으로 인간됨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자들도 시편의 시인이 '나'라고 칭한 대상에 배아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에 대한 문제에 답을 추구하는 메일랜더(Gilbert Meilender)교수의 논증은 매우 도움이 된다. 그는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나 출산하지 않은 태아들은 속죄의 대상에서 제외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어떤 연령이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하면 태아나 초기 전배아((pre-embryo)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신학적 근거 역

시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배아를 배제하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많은 나라들은 최소 8주 내지 12주가 지나야 잠재적 인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되게 한 그 순간부터 그 존재를 알고 돌보시고 끝까지 관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아무리 사회가 뱃속 존재의 가치를 그 생명체의 인간다운 기능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느냐는 기준으로 태아의 지위를 평가해야 한다.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수태된 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초기 생명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보호가 더 필요한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만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받기 어렵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청소년 임신, 장애아 임신, 원하지 않는 임신과 같은 매우 곤혹스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감당하기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낙태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변할 수 없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일을 마주할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 그것을 감내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